

현장에서

불기2554년 부처님오신날이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5월27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는 서울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선물을 받았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달 동안 모은 성금으로 초코파이를 구입해 이날 호국연무사에 직접 전달했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은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훈련소 훈련병들을 위한 모연에 평소 아껴왔던 찜짓돈을 흔쾌히 내렸다. 손자 같은 병사들을 먹일 간식거리를 산다고 하니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했다고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애뜻한 마음이 담긴 초코파이는 군에 갓 입대 한 훈련병들에게 그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

복지관 어르신들의 작지만 따뜻한 초코파이 보시행

최근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발대식 이후 전국 각지에서 보시행이 어지고는 있지만, 훈련소 포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가운데 어르신들의 작지만 따뜻한 보시행은 현장에서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군승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호국연무사는 일요일법에 평균 2500명이 법당을 찾고 있는 만큼 초코파이 한 개가 아쉬운 실정이다. 크고 거창한 보시도 중요하지만, 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보시도 포교현장에서는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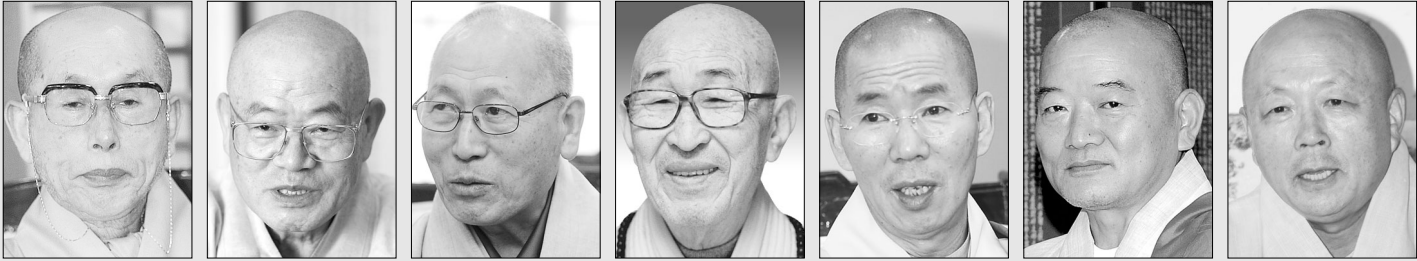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스님은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좋아 내년에는 후원금을 늘리는 한편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불어 다른 복지관에서도 훈련소 포교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스님의 바람이 내년에는 꼭 이뤄질 기대해 본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결산 / 입적후 개인명의 재산 종단 출연

“출가자면 당연히 할 일...몸뚱이까지도 시주물”



‘개인명의 재산 종단출연’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는 중정예하와 원로 종진 스님들의 솔선이 크게 작용했다. 사진 왼쪽부터 원로의장 종산스님, 전계대 화상 고산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 고불총림 방장 지증스님, 호계원장 법등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 군종교구장 자광스님.

승려법 개정 후 2년6개월 만에 ‘명’이 공포된 후 시행에 착수하는 입장이 대체를 이루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명’의 시행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난 4월30일 ‘승려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으로 명칭과 내용이 변경됐다. 무소유 정신을 기반으로 한 승가에서 당연한 조치라는 견해가 나왔고, 취지에 공감한 상당수 스님들은 ‘명’ 공포와 관계없이 실천에 옮겼다.

본지는 지난 1월 ‘승려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제정 공포 후 지속적인 취재와 보도로 스님들의 ‘입적 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내(內) 출연’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왔다. 지난 4월말까지 총무원은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됐다. 본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과정을 정리했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종단 3원장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35명은 지난 4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입적 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내(內)에 출연하겠다’는 내용의 친필 유언장을 작성했다.

불교신문 자료사진



2007년 중앙총회 첫 발의 2007년 5월 법진스님 등 중앙총회의원 4명이 사유재산의 종단귀속 관련 승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9월에 열린 중앙총회에서 승려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승려법 개정안의 취지는 개인명의 재산 취득 금지, 생전 취득 재산을 환속·제적·사망 시 종단에 귀속, 구족계 수계 시와 5년마다 유언장과 약정서를 종단에 제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9년 5월1일 총무원은 승려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 ‘승려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튿날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스님)는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0년 1월21일 총무원은 ‘승려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제정)’을 공포했다. 2월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승가공동체의 기본은 공유의 정신”이라며 협조를 당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같은 날 총무부장 영담스님과 기획실장 원담스님이 종단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2월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

두 차례 공청회 ... 의견수렴 ‘공감대 확산’ 중정예하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3월12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증스님이 유언장을 작성하고 백양사 교구중회도 동참의사를 밝혔다. 3월12일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는 종단의 ‘명’ 공포에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3월18일 호계원장 법등스님이 지난해 9월 전 재산을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 기증하기로 공증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도 10년 전에 입적 후 재산을 종단 사찰인 포천 동화사에 기증하기로 서약하고 공증까지 마쳤음이 알려졌다. 3월21일 제17교구본사 금산사 교구중회가 동참을 결의했다.

제1차 토론회 개최 총무원은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23일 ‘승려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이라는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3월23일 ‘승려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으로 변경했다. 4월23일 법전 중정예하가 친필 유언장 작성해 총무부장 영담스님에게 전달했고, 4월26일 열린 원로회의는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한 후 원로의장 스님이 답화문을 발표했다. 4월27일 총무원장·교육원장·포교원장 등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전원이 친필 유언장을 작성했고, 4월30일 ‘승려사후 개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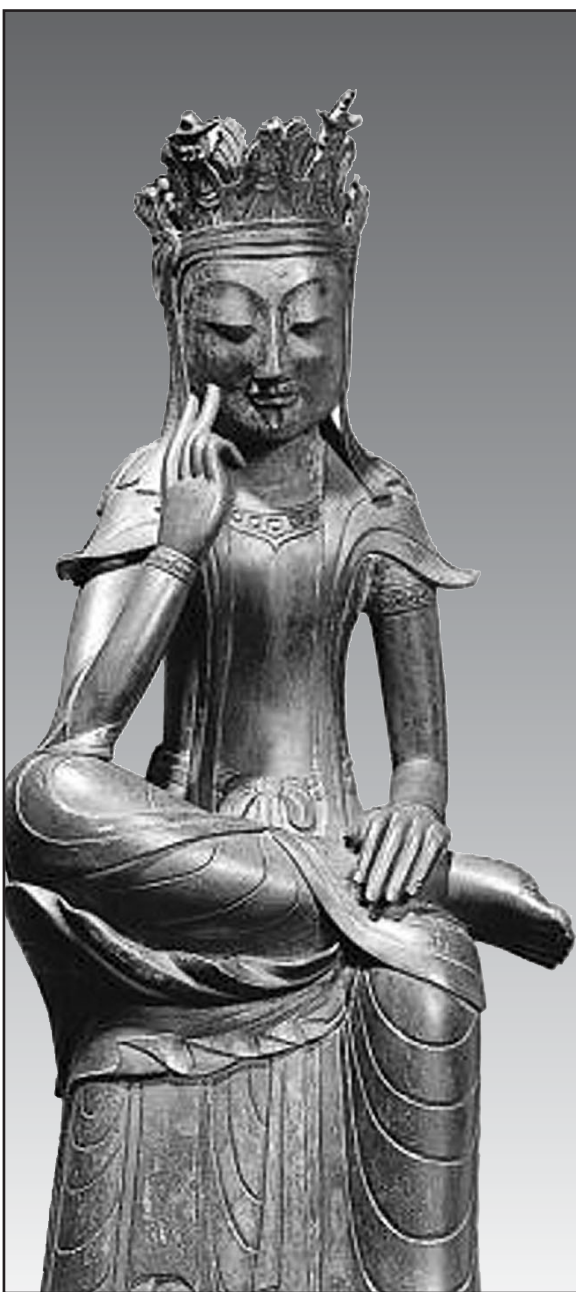
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주요 개정사항이 공고됐다.

입적 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내(內) 출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이는 출연처를 조계종 유지재단으로 한정하지 않고, 출가본사나 주석처 또는 불교 법인 등으로 확대하면서 부정적인 편견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한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형성된 개인명의 재산을 입적 후에 공적으로 회향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제도 강화 필요”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도를 한층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앙총회의원 법진스님은 “당초 승려법 개정안에 비해 후퇴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로회의의 부의장 밀운스님과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은 “출가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하고, 종단의 모든 스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23일 입적 후 개인명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한다는 내용의 친필 유언장을 작성한 법전 중정예하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하는 것으로 본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면서 “몸뚱이까지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 종단을 위해 움직이고 모든 것을 행동해야지 달리 할 수 없는 몸뚱이다”라고 강조했다. 법전 중정예하는 “몸뚱이 자체도 시주물이다. 하물며 재산은 말할 것이 있는가. 우리가 무슨 재산이 있는가”라며 “종단의 모든 스님들이 협조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사)명상연구원 인재초빙공고

「사단법인 명상연구원」이 “명상은 삶의 본질이며 진정한 행복은 명상으로부터 온다”라는 기본정신을 토대로 널리 인재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질과학문명의 풍요 속에서 팽목적이고 경쟁적으로 경제적 부만을 추구해온 결과,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아의 상실 등, 참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래 인간에게 깃들여진 안온함과 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자각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시대와 환경, 그리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변한다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스스로가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게 변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모집분야	모집부업분무	인원	제출서류	지원자격
사무분야	- 사무총괄 - 일반사무	신임 및 경력 ○명	- 공통 • 입사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성장배경, 성격, 경력사항 향후계획 등포함)	• 신임 - 대졸 이상 대상자 • 경력자우대 • 외국어(영어, 일어) 가능자 우대 • 오피스(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및 인터넷 활용에 능한 자 • 명상과 봉사를 실천하면서 대승적 삶을 살고자 하는 자
	연구분야	- 명상수련 체계 및 단계별 프로그램 연구 - 명상을 바탕으로 한 상담심리 연구 - 명상의 의·과학적 연구성과의 현대적 활용방안 연구	신임 및 경력 ○명	- 1차합격자 • 경력증명서 • 최종학교졸업 및 성적증명서1부 • 주민등록등본1부

■ 근무지역 : 서울 ■ 근무형태 : 정규직(4대보험포장) ■ 연봉 : 당사내규에 의한

▶ 제출서류
* 1차 서류는 접수 시 이메일에 파일(워드 또는 한글)을 첨부하여 보내주세요.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외국어 인증서류 등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용을 취소합니다.

▶ 전형방법
1차-서류전형(입사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서류전형결과와 2010년 6월 24일 통보예정
2차-면접심사(1차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접수방법 : 이메일(marineco43@hanmail.net) 및 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 2010년 6월 18일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113호 (사)명상연구원 인사담당

▶ 문 의 : 1577-0373, 010-8432-1817

(사)명상연구원 이사장 세 민(前 해인사·조계사 주지 現 원심원사 주지)
이 사 송석구(前 동국대학교 총장 現 가천의과학대학 총장)
원 장 현 중(前 조계종불학연구소장 現 삼성당 주지)